

- 주요 뉴스: 미국 9월 ADP 민간고용, 전월비 증가. 연준의 정책기조 선회 기대는 약화
 - WTO, 내년 세계무역 증가세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전망
 - 유로존 9월 S&P 글로벌 종합 PMI, 20개월래 최저. 경기침체 우려 증폭
 - OPEC+, 미국의 증산 압력에도 일일 200만배럴 감산 결정
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연준의 정책기조 선회 기대 감소 등이 영향

주가 하락[-0.2%], 달러화 강세[+1.1%], 금리 상승[+12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국채금리 상승 등이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
유로 Stoxx600지수는 소매업 관련주 약세 등으로 1.0% 하락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9월 민간고용 증가 등이 반영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1.0%, 0.4% 하락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전망 등이 배경
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6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416.6원, +6.5원) 0.5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10/5일	10/4일	전일대비			10/5일	10/4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783.3	3,790.9	-0.20%	국채 금리 10y	미국	3.75%	3.63%	12bp
	유럽	398.91	403.03	-1.02%		독일	2.03%	1.87%	16bp
	중국	휴장	휴장	-		영국	4.04%	3.88%	16bp
	일본	27,121	26,992	0.48%	CDS 5y	한국	55bp	53bp	2bp
	한국	2,215.2	2,209.4	0.26%		중국	98bp	95bp	3bp
환율	달러지수	111.22	110.07	1.05%	위험 지표	EMBI+	-	448	-
	유로화	0.9884	0.9986	-1.02%		VIX	28.55	29.07	-1.79%
	엔화	144.64	144.13	-0.35%		WTI유	87.76	86.52	1.43%
	위안화	휴장	휴장	-	원자재	구리	350.1	349.0	0.30%
	원화	1,410.1	1,426.5	1.16%		금	1,716.3	1,726.1	-0.57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9월 ADP 민간고용, 전월비 증가. 연준의 정책기조 선회 기대는 약화

- 최근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통화긴축을 중단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. 하지만 이날 발표된 9월 ADP 민간부문 고용이 20.8만건으로 전월(18.5만건) 및 예상치(20만건) 상회하면서 이러한 기대가 약화.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일자리 증가세 이어질 전망(High Frequency Economics)
- 또한 9월 ISM 서비스 PMI는 56.7로 전월(56.9)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, 세부항목 중에서 고용지수가 전월비 상승(50.2→53.0)하여 기업의 노동수요가 여전히 매우 강하다는 사실이 확인. 한편 공급업체의 운송 시간도 짧아지며 이전에 비해 개선
- 이 외에 연준의 주요 인사들도 매파적 의견을 제시.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문제이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면서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를 피력
- 애틀랜타의 보스틱 총재 역시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한 싸움은 초기 단계에 있다고 주장. 최근 일부 희망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으나 지금은 높은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
- 그러나 일부에서는 10/7일 발표 예정인 9월 노동보고서의 비농업부문 고용이 전월비 다소 감소하지만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전망. 이에 통화긴축의 속도 혹은 방향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WTO, 내년 세계무역 증가세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전망

- '23년 세계무역 증가율 전망치를 하향(3.4%→1.0%). 에너지 및 식품 가격 급등과 금리인상 등으로 내년 수입 수요가 악화되면서 세계무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. 또한 러-우 전쟁이 악화될 경우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

■ EU 외교·안보정책 대표, 회원국들은 러시아 추가 제재에 합의

- 보렐 대표에 따르면, 이번 추가 제재는 러시아의 제3국에 대한 원유 수출 가격 상한제 등이 포함. EU의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 합병 투표를 인정할 수 없으며, 러시아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

■ 유로존 9월 S&P 글로벌 종합 PMI, 20개월래 최저. 경기침체 우려 증폭

- 유로존 9월 S&P 글로벌 종합 PMI는 48.1로 전월(48.9) 및 예상치(48.2) 하회. 이번 결과로 유로존의 경기침체 회피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약화. 에너지 가격 급등과 러-우 전쟁 등이 계속해서 소비심리를 악화시켜 기업활동을 저해
- 이번 결과는 기업활동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물가상승 압력이 약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. 4/4분기 독일을 포함하여 유로존의 일부 국가들은 이미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(Capital Economics의 Jessica Hinds)

■ 독일 연구기관 Ifo, 단기간 내 의미 있는 수준의 물가하락 가능성은 낮은 편

- 최근 다수의 기업들이 제품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를 고려 시 당분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. 한편 9월 물가기대지수는 53.5를 기록하여 전월(48.1) 대비 상승했다고 발표

■ OPEC+, 미국의 증산 압력에도 일일 200만배럴 감산 결정

- 이번 결정을 통해 유가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. 시장에서는 이번 선택이 그 동안 유가 안정을 위해 증산을 원했던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인식. 백악관은 OPEC+의 감산 결정이 근시안적인 선택이라고 지적

■ 아람코 CEO, 세계적으로 원유 증산 여력이 매우 낮은 상황

- 사우디 국영 석유업체 아람코의 아민 나셀 CEO는 시장에서 경기둔화 시 원유 수요의 향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, 현재 석유업체들은 기존 생산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발언

■ 뉴질랜드 중앙은행, 정책금리 0.5%p 인상.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추가 인상 가능

- 이번 결정으로 정책금리는 7년 만에 최고 수준인 3.5%를 기록. 일부 위원들은 0.75%p 인상을 주장. 아드리안 오 총재는 물가안정 및 최대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위원들이 통화긴축 지속을 선택했다고 언급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0/5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8월 무역수지(억달러): -674, 7월(-704.6), 예상치(-680)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연준 정책기조 선회 가능성, 시장의 기대는 재차 상승 - 블룸버그

(Godot or Pivot? Markets Hope Waiting's Almost Over)

-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연준이 금리인상을 멈추고 완화 기조로 선회하는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가. 미국의 고용 둔화 가능성이 JOLTS*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예상외로 0.25%p에 그친 점 등이 배경

*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s Survey : 미국 구인, 이직 보고서

- 그러나 자발적 퇴직률(Quit Rate)이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인 점, 글로벌(중국 등) 경기 의존도가 높은 호주와 미국 경제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연준의 금리인하(pivot) 명분은 아직 불충분하며 시장의 '희망사항'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

■ IMF, 비유동자산 보유 펀드들의 금융안정성 위협 가능성을 경고 - Financial Times

(IMF warns funds with illiquid assets pose risk to financial stability)

- IMF는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로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(약 41조달러 규모로 추정)들은 자산 매각의 어려움으로 미스매칭 문제가 발생하고 펀드의 추가 유출을 촉발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잠재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
- 최근 몇 달 동안 개방형 채권 펀드들에서 자금 인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회사채, 부동산 및 일부 신흥국 자산 등 거래 빈도가 낮은 증권들이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

■ 중국의 수출 둔화, 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 - Financial Times

(China's difficult choices as export growth slows)

- 경제학자들은 중국 당국이 수출 둔화에 직면하고 있으나,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. 수출둔화를 대체하기 위해서 국내소비 촉진을 위한 저축률 인하 혹은 투자확대가 필요. 하지만 이러한 방법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
- 소비촉진을 위한 저축률 하락 유도는 소비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질 우려. 이에 당국은 이러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
- 또한 민간기업은 수출둔화로 투자를 오히려 축소할 가능성. 이를 고려하여 당국은 인프라 투자를 늘릴 수 있으나 부동산 위기 등으로 정부지출은 이미 과도한 수준. 이에 인프라 투자 확대는 정부 부채부담을 가중시킬 소지

■ 연준의 통화정책 준칙,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- WSJ

(Fed's Rate Increases Defy All the Rules)

- 통화정책 준칙은 연준의 정책을 예상하는데 도움을 주며 동시에 정책 효과를 강화. 연준은 중립금리를 중시하는 테일러 준칙을 활용했으나, 경기침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'20년 8월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로 불리는 관성(Inertial) 준칙을 채택
-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지표를 중시하는 1차 차분(First Difference) 준칙으로 변경. 다만 클리블랜드 연은은 해당 준칙을 적용하면 1년 뒤 연방기금금리가 22%에 이를 것으로 추정. 이는 과도한 긴축을 일으킬 수 있어 준칙이 다시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

■ 최근 미국의 물가 데이터, 10월 소비자물가의 급등을 암시 - Forbes

(Coming CPI Inflation reports could spike according to most recent forecasts)

- 클리블랜드 연은이 매일 업데이트하는 '인플레이션 nowcast'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(CPI)는 전월비 +0.7%로, 9월(+0.3%)대비 큰 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. 근원 CPI는 전월비 +0.5%, 전년동월비 +6%대로 연준의 목표를 크게 상회
- 긍정적 소식은 아직 10월 CPI 발표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며, 그때까지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예상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점. 다만 동 수치가 유지된다면 연준에 상당한 우려로 자리 잡을 가능성

■ 미국 노동시장 정상화, 퇴사율 등을 고려 시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- Financial Times

(The Jolts jolt)

■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, 전략적으로 '에너지 연합' 설립 검토 가능 - Financial Times

(The EU needs a genuine energy union now)

■ OPEC+의 감산, 장기적 측면에서 대체 에너지 촉진으로 산유국에 피해 유발 - WSJ

(OPEC+ Brinkmanship Could Backfire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